

2 0 1 1 부 산 기 타 페 스티 발

# Busan Guitar Festival

2011년 8월 7일 (일) 오후 6시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0,000원 (학생할인 50%)

주최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후원  
BSMF 부산문화재단

협찬  
백정형외과의원 바하기타음악원 민들레기타음악원

본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2011 Busan Guitar Festival

무덥고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클래식 기타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가진 사람들,  
아마추어와 프로기타리스트가 함께  
땀과 열정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클래식기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조금은 힘들더라도  
저희 합주단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제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단장 백승남  
(애운대백정명외과원장)



# Program

기타듀오 - Summerrain

Por Una Cabeza & Liber Tango  
- Carlos Gardel & Astor Piazzolla

Twilight  
- Kotaro Oshio

아카시아  
- Summerrain

산신연주 - 미야무라 미쓰오

月の美しさ (沖縄民謡・わらべ歌)  
(달의 아름다움, 오키나와 민요)

安里屋ユンタ (沖縄民謡)  
- 아사토야 율타

花~すべての人の心に花を~  
(꽃~모든 사람의 마음에 꽃을~)

童神 (わらびがみ) 天の子守唄~  
(하늘의 자장가~)

アリラン  
(아리랑)

- Intermission -

기타솔로 - 제정민

Verano porteno  
- A. Piazzolla

Primavera portena  
- A. Piazzolla

Elege  
- J.K. Mertz

기타앙상블 -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  
(지휘/편곡 고충진)

Faire Phyllis  
- John Famer

Serenade in G major 'Eine Kleine Nachtmusik'  
- Wolfgang Amadeus Mozart

- 1 Allegro
- 2 Andante - Romance
- 3 Allegretto - Menuetto
- 4 Allegro - Rondo



## 곡해설

해설 신정하 (한국기타협회 자문위원)

### \* Por Una Cabeza & Liber Tango - Carlos Gardel & Astor Piazzolla

Por Una Cabeza 와 Liber Tango를 두 대의 기타를 위한 곡으로 편곡한 작품이다.

Por Una Cabeza는 영화 "여인의 향기 (The scent of women)"을 통해 대중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탱고 연주곡으로 알려진 카를로스 가르델의 명작이며 Libertango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위에 격정적이면서도 우울한 탱고의 선율을 전개시킨 작품으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이다.

콘티넨탈 탱고와 아르헨틴 탱고를 하나의 Track 으로 편곡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타라는 악기가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장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다.

### \* Twilight - Kotaro Oshio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핑거 스타일로 유명한 일본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코타로 오시오의 독주곡인 "황혼"을 2중주로 편곡하였다. 코타로 오시오는 1968년 오사카 태생으로서 그의 기타 음악은 팝, 뉴 에이지,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퓨전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황혼'은 서정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선율로 인해 국내 기타 애호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 아카시아 - Summer Rain

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산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깊은 산 속 작은 암자의 모습과 조용하지만 힘과 생기 가득한 열정으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모습을 국악적 요소를 담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 \* Verano porteno & Primavera portena - Astor Piazzolla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탱고라는 형식을 무도장이나 술집의 여흥음악의 차원에서 예술음악으로 승화시킨 아르헨티나의 음악가이다. 이전의 통속적인 탱고음악과 차별되는 그의 탱고작품은 "Nuevo Tango" 즉 새로운 탱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탱고음악 연주자로 자리를 잡았으나 그의 재능이 단순한 탱고 연주자로 머무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의 추천으로 작곡가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에게 정식 음악수업을 받게 되었다. 훗날 그는 빠르게 유학을 떠나 세계적인 음악 지도자인 나디아 불랑제 여사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격려와 지도로 그의 향후 음악활동을 송두리째 바꿔게 된다. 나디아 불랑제 여사는 피아졸라의 내면에 원천적으로 녹아있던 탱고 음악의 정신을 단순히 통속적인 음악의 정서로 폄하하지 않고 오히려 서양음악의 전통적인 작곡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그 결과 이전의 탱고음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술혼이 충만한 음악의 한 장르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오늘 연주되는 곡은 그의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에서 여름과 봄 2개 악장이다. 아르헨틴 탱고의 발상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계절의 정서와 풍광을 탱고 형식을 사용하여 묘사한 걸작으로서 오늘날 원곡은 물론 기타 독주와 중주 등 다양한 편곡으로 연주되는 피아졸라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 Elegy - Johann Kaspar Mertz

베를리오즈 등의 작곡가가 활발히 활동하며 규모가 큰 관현악 음악이 서양음악의 주류를 이루던 19세기에 오케스트라 악기로 발전하지 못하고 작은 음량 등의 결정적인 핸디캡 등의 이유로 몇몇 실내악 분야에서만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던 기타음악이었으나, 그 시기에도 훌륭한 연주가 겸 작곡가들이 나타나 후세에 좋은 작품들을 다수 남기고 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헝가리 출신의 요한 카스퍼 메르츠이다. 그는 러시아 출신의 부호이자 열렬한 기타 애호가였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마카로프가 개최한 기타음악 작곡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명성을 얻었으며 기타를 위한 독주곡 뿐만 아니라 기타 2중주곡, 피아노와 기타를 위한 작품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악기와 기타를 위한 작품들을 남기고 있으며 일생 동안 100여곡이 넘는 작품을 썼으나 동시대의 다른 기타 작곡가들과 함께 상당기간 잊혀진 작곡가로 여겨졌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19세기 낭만파 시대의 기타음악들은 레이프 크리스티안센이나 데이비드 러셀과 같은 실험적인 비루두오소들에 의하여 그 가치가 발굴되고 재조명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메르츠의 스케일이, 크면서 정서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연주회용 작품들이 오늘날에는 널리 연주되고 있다. "엘레지(비가)"라는 작품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메르츠의 명곡이며 제목에서 엿보이듯이 우수에 찬 멜로디를 분산화음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종일관 절절이 펼쳐지고 있다.

\* Faire Phyllis - John Famer

이 작품은 1599년에 존 파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출판된 다성부의 잉글리시 마드리갈 작품이다. 마드리갈은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에 작곡된 세속적인 성악곡의 한 종류이며 여러 성부가 서로 모방하며 전개하는 양식으로 작곡되었다. 노래 내용은 산에서 홀로 양을 치던 소녀가 다른 양치기들 몰래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Serenade in G major 'Eine Kleine Nachtmusik'

- Wolfgang Amadeus Mozart

I. Allegro

II. Andante - Romance

III. Allegretto - Menuetto

IV. Allegro - Rondo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수 많은 명곡들 중에서도 이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작은 소야곡)"는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1787년 작곡된 이 작품은 각각 2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및 더블 베이스 옵션으로 연주 되도록 구성된 작품이지만 현악 오케스트라로도 자주 연주되며 유명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편곡이 존재하나 오늘날 LAGO 등의 편곡에 의해 기타 사중주로도 편곡되어 연주되기도 한다.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악장은 G 장조의 전형적인 소나타-알레그로 형식으로서 귀에 익은 두 개의 활발하고 아름다운 주제가 전체 악장을 이끌어 나간다. 2악장은 C 장조의 서정적인 로망스 악장으로서 각 부분에서 조성을 바꾸어 진행하는 A-B-A-C-A + Coda의 론도 형식을 취하고 있다. 3악장은 알레그레토 빠르기의 미뉴에트 형식으로 작곡되었으며 트리오 부분을 삽입한 A-B-A 구성으로 연주된다. 플루트 부분은 D 장조로 전조된다.

마지막 악장인 론도는 다시 활기찬 알레그로의 템포로 연주되며, 주제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형태로 작곡되었다. 말미의 코다부분을 길게 만들어 밝고 경쾌하게 곡을 마무리하고 있다.



## Summerrain Guitar Duo

클래식 기타듀오 ' Summer Rain ' 은 2005년도에 결성하여 여러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Guitar의 다양한 음색과 실험을 통해 기존의 레퍼토리가 아닌 새롭게 작곡된 작품들과 귀에 익은 작품들까지 새롭게 편곡하여 음반과 다수의 공연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 www.summerrain.co.kr ----

- 2006 김광석 추모 10주년 기념 콘서트 초청 연주  
단편영화 (빈터) O.S.T 음악 감독
- 2008 일산 연주홀 Dolce 듀오공연
- 2009 서울 정동 성당 성프란시스 홀 초청 공연  
파주 헤이리 판 페스티벌 초청공연  
전주 소리문화 전당 연지홀 초청공연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 극장 " 2009 Summer Rain Guitar Concert " 공연  
Summer Rain Guitar Duo 첫 번째 음반 취입
- 2010 Summerrain Guitar Duo 초청 연주회  
일산 세광문화원 카페 "로템"
- 2010 전주 세계소리축제 초청 공연  
경기전 한옥마을
- 2010 구로 아트밸리 극장 초청 공연
- 2010 SUMMERRAIN Guitar Duo & Cordoba Guitar Ensemble  
일산 중산마을 세광 문화원 '카페테리아' 공연.
- 2010 부산 글로벌 아트홀 "2010 Summer Rain Guitar Concert" 공연  
춘천 KBS FM 음악여행 생방송 출연  
춘천 몸짓극장 "2010 Summer Rain Guitar Concert" 공연
- 2011 Summer Rain Guitar Duo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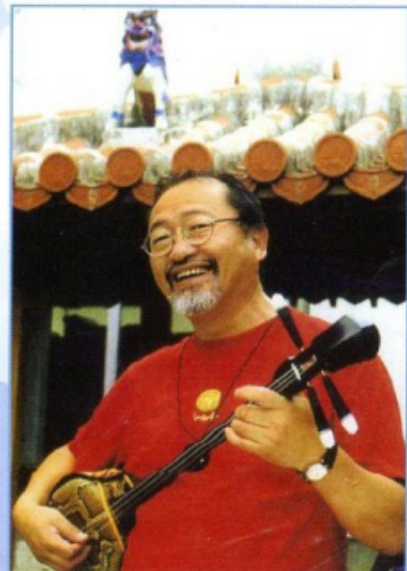


### 임승문

1994년 코리안 기타 트리오  
국립원주대학에서 클래식기타 전공  
졸업 후 락밴드 결성, 다수의 밴드공연  
대중음악과 영화음악 등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클래식 기타로 편곡  
2010년 그의 작품 " 아카시아 " "산책" 발표

### 심 현

1991년 클래식 기타 앙상블 ' DACE ' 로 활동 중 독일 유학  
베를린 Hans Eisler 국립음대에서 클래식 기타를 공부하며  
재독 교포 작곡가 정일련 선생에게 1년간 작곡 사사  
베를린에서 작곡한 기타를 위한 그의 첫 작품 ' Tanz ' 발표  
2006년 2대의 기타를 위한 ' Summer rain ' 과 ' Crack ' 발표  
2009년 ' Prelude for May ' 발표



## 미야무라 마쓰오

1951년 후쿠오카 태생  
오키나와 전통 악기 『산신』 연주 가수 (沖繩伝統楽器「三線」演奏歌手)  
오키나와 홍보 대사



## 제정민

제3회 한국기타협회 콩쿨1위 입상  
 MBC 초청 순회연주회  
 프랑스 문화원 초청 독주회  
 아랑훼즈 기타 협주곡 국내 초연  
 (대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 금난새)  
 전국 순회 독주회 수회 및 전국 각 대학 초청 연주회  
 TBCtv 사랑의 음악회, KBStv 문화전  
 2008 이상근음악제 초청 연주  
 2008 마티네 콘서트(수성필과 협연)  
 2009 대구필과 협연  
 한국 기타협회 지부장 및 자문위원 역임



##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은 2002년에 창단하여 매년 정기연주회와 부산기타페스티벌을 기획/공연하고있으며 일반인과 프로연주자가 함께 단원이되어 기타애호가들과 함께 호흡을 함으로서 기타의 저변확대에 힘쓰고있으며 부산에서는 유일한 기타오케스트라이다.

2002-10-03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창단  
 2003-11-16 제1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2004-04-10 추리문학관초청신년음악회 [추리문학관]  
 2004-07-24 제2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2004-08-07 달맞이축제초청연주 [어울마당]  
 2004-10-17 한일친선연주회 [동래문화회관]  
 2005-03-05 한국기타문화원개관기념초청연주회  
 2005-03-20 2005 통영국제음악제프린지참가  
 2005-08-21 2005 부산기타페스티벌 [금정문화회관]  
 2005-10-02 제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민회관]  
 2006-05-27 토요일상설무대 [부산문화회관]  
 2006-07-30 2006 부산기타페스티벌 [금정문화회관]  
 2006-11-05 제4회 정기연주회 [부산문화회관]  
 2007-07-29 2007 부산기타페스티벌 [금정문화회관]  
 2007-11-11 제5회 정기연주회 [금정문화회관]  
 2008-08-10 제1회 수원섬머기타페스티벌 [한누리아트홀]  
 2008-08-17 2008 부산기타페스티벌 [동래문화회관]  
 2008-09-28 부산생활음악축제 [금정문화회관]  
 2008-11-02 제6회 정기연주회 [금정문화회관]  
 2009-08-16 2009 부산기타페스티벌 [금정문화회관]  
 2009-11-08 제7회 정기연주회 [동래문화회관]  
 2010-01-16 토요일상설무대 [금정문화회관]  
 2010-08-15 2010부산기타페스티벌  
 2010-09-12 2010부산생활음악축제 [금정문화회관]  
 2010-11-06 제8회 정기연주회 [해운대문화회관]  
 2010-11-07 진주순회연주 [진주청소년회관]  
 2010-11-13 거제순회연주 [육포사회복지관]  
 2011-04-23 봄 연주회 [해운대문화회관]



1 파트 서승완 이광수 양지선  
 박주영 김경태 고성현  
 2 파트 배윤진 이미영 윤정이 박찬 전홍재 강민정  
 3 파트 김현아 박진욱 민장기 김지혜 강용찬  
 4 파트 정지은 이다정 김영순 김현지 고정현  
 챔발로 이주호  
 콘트라 문종익 양준영  
 기타론 조화영 전해주